

書誌統整事業論 (四)

劉 永 玑

3) 經濟的인 立場

Aristoteles의 말을 빌린것까지 없이 人間은 世上에 나오면서부터 政治的存在(zoon politikon)인 同時に 經濟人(homo oeconomicus)임은 嚴然한 事實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如斯한 自明한 理知는 圖書館이라고 하는 文獻資料를 保存하며 이들을 中心으로 하여 大衆社會에의 奉仕를 營爲함을 主된 使命으로 삼고 있는 文化機關과 또한 이보다는 좀 더 高次의이고 高速度의인 奉仕의 機能作用을 生命으로 삼는 바 新銳情報機關인 「더큐멘테이션·센터」(Documentation center)와 같은 하나의 「人」으로서의 法人體(homo juridicus)의in機構에 다도 또한 宜當하는 眞理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如斯의 homo oeconomicus에 있어서 가장 噴緊하게 追求되어져야 할 「못토」는 무엇보다도 技術의合理性를 通하여 最低限度의 努力과 費用으로 最大最高의 所得을 期約할수 있는 經濟原則(economic principle)이라는 것이 前提되어야 하며, 이러한 標榜下에 모든 「부폐인」은 總動員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어면 類型의 社會를 莫論하고 그것은 自體內의 作用過程에서 뿐더러 丹 社會와의 交互作用過程에서 齊來되는 莫大한 量의 所產物이 高速의이면서도 多樣의인 複合性과 膨脹率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肉迫하고 있음을 우리는 直感할 수

있는 바이지마는, 其中에서 特히 「매스콤·메디아」를 通하여 巨大化하여 가는 文獻界의 發展相을 一瞥한다 할때, 거기에는 不斷히 또한 高速度로 그려면서도 高率의 으로 日益 增幅하여 가는 業務量과 充分히 訓練된 專門職의 人的 資源의 不足, 恒常 緊迫感을 주는 時間의要素 및 立體文明이 주는 重壓의in 空間의要素等이 內在하는것임에 着眼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文明의 現實에서 어찌면 如斯한 物質文明이 招來할지도 모를 呦咀된 未來를 悲觀視하는 自家撞着으로 苦悶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率直히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物質文明의 劫火속에 우리 文獻界가 繫要로하는 書誌統整事業이 經濟의in 立場에서 要請된다고 하는 理由가 存在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宜當히 一考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다음의 네가지로 다시 區分하여 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即 物的資源의 經濟·人的資源의 經濟·時間의經濟 및 空間의經濟의 네가지 「카테고리」가 그것들인 것이다.勿論, 이들은 앞으로 敍述展開되는 바와 같이 그리고 많은 事例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同一事項乃至는 共通된 性格의 것들이 境遇에 따라라서는 그 觀點과 觀察意識作用如何에 따라서 相異하게 捕捉되는데서 오는 것임은 毋論의 일이다.

첫째로, 物的資源의 經濟라는 面에서 이를 觀察한다면, 屢述해온 바와 같이 書誌統整을 通하여 우리는 資料의 有無와 그 所在를 把握하므로써, 重複의인 資料收集을 避하는 同時に 이들에다 充當될 財源을 全國的인 規模에서 보다 더 豐富한 種類(variety)의 資料入手를 爲하여 投入될 수 있게하고 또한 稀觀本, 貴重本等의 接近하기 힘든, 따라서 그것은 貸出禁止의措置가 取하여지는 資料들을 비롯하여 貴重의 度가 前者들 보다는 못하지마는 이미 絶版이되어 入手하기 힘든 資料들의 現存所在를 書誌統整에 依하여 把握하므로써 往來에 必要한 旅費를 消費함이 없이, 書信이나 電話를 通하여 簡單히 또한 迅速하게 寫眞複製方法으로 複製된 所要의 資料를 極히 廉價로入手할 수 있는 것이며, 境遇에 따라서는 圖書館相互間에서의 資料貸借制度를 通하여 直接 所要의 原資料를 廉價로 借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點에서 또한 그것은 資料運用上에서의 經濟의in 利得을 利用者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특히 film에다 micro-reproduction을 하는 境遇에는 그 生產과入手費用의 安價性이라는 點과, 資料에의 現實의이고도 直接的인 頻繁한 接觸으로 말미아아 그 本來의 資料를 汚損 또는 破損乃至는 磨滅의 度率増大를 가지오게되며 따라서同一한 新品資料로서 이를 代置시켜야 한다는 問題가 提起될 餘地가적을 뿐더러 또한 製本費가 計上 될 必要가 없다고 하는 點等에想到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때에 있어서 書誌統整上의 이 micro-reproduction의 方法이란 그의 耐久性이 紙類로 形成되는 圖書類에 比하여相當한 長時日間의 持續性을 隨伴하게 된다는 長

點을 갖는 것이어서 바야흐로 때는 mini-literature의 生產時代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資料를 利用함에는 擴大器가 있어야 한다는 點, 「휠림」이기 때문에 紙類에 比하여 火氣를 더욱 많이 탄다는 等의 短點이 있기는 하다.

또한 如斯한 書誌의 統整을 通한다면 어느 研究家가 發表한 論文의 所在를 索引類에 依하여 認識할 수 있음은勿論直接 그 著者에게 著書한張으로 要請하여 그論文만의 拨刷(reprint)를 無料로入手할 수 있는 것이 普通이다. 大概의 境遇, 誠實하게 다루었다는 것으로 自負하는 論文發表者는 그것이 發表됨에 際하여自己論文의 그拨刷를 30~50部式을廉價로 特請하여保存하였다가 實績證明資料用으로 그렇지 않으면, 希望者에게 無料로 寄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本書誌統整事業이 圓滑하게 運營된다면 必然의으로, 文化人們의 著作權益의 法的保護와의 關連性에서 一종의 強制性를 떠운 刊行物納本制度를 採擇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契機로 國家의 世界的인 事業으로서의 書誌統整事業의前提條件이 되는 資料는 財政의in 負擔없이 自動的多角의으로 廣汎하게入手될 수 있는 것이며, 이터한 方法에 依據한다면, 全國乃至는 地域의in 綜合書誌事業 또한 容易하게 推進시켜 나아갈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福祉國乃至는 文化國家組織과 그의 機能作用을 志向하고 있는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年年歲歲莫大한 量과 種類를 갖고 高速度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도 不可缺且 有數한 研究資料의 「구설」을 다하여 주고 있는 政府刊行物을 生產하고 있는데 이에 對한 書誌統整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그것이 無料 配付性을

띠웠다는 意味에서, 如斯한 資料들의 繼續的인 入手로부터 얻어지는 所得이란 自明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삼하게 再言할必要를 느끼지 않는바라 하겠으며 아울러 本事業이 廣汎한 資料交換乃至는 分配를 為하여 寄與하는바는 또한 大端한 것이다

뿐더러 本書誌統整은, 그 어느 特定한 文獻機構乃至는 企業體或은 研究機關自體內에서 일삼고 있는바 抄錄作成(abstracting service)과 이를 為한 高級한 專門 Staff들에 對한 人件費의 所要라는 點을 想起할 때, 또한 그것이 優秀한 水準의 質的奉仕와 그에 對한 信賴性如何라는 問題를 檢討할 때, 이처럼 大端한 無理를 敢行하고 있는 小規模 abstracting service에도 또한 利得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即 그것은 非專門의 小規模의 自體抄錄業務란 것이, 抄錄作成을 為한 高度의 專門性을 지니는 各專門主題分野에 亘한 專門委員들로構成된組織體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因하여 恒常 甚한 主觀性과 內容이 貧弱한 抄錄만을 일삼게 되는 것 이기 때문에 그다지 信賴받을만한 것이 되지 못할뿐더러 設使 그것이 自體機構內에서 可能하다 손꼽더라도 於此彼 그것은 高級한 專門委員의 構成體를 두어야 할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莫大한 人件費와 出版費等의 經費가 消耗되어야하는데 如斯히 各己 機關團體가 重複的으로 抄錄事業을 運營하는 境遇에는 그것으로부터 派生되는 財政上의 浪費란 想像함에 어립지 않다 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書誌統整事業을 通한다면 그것은 各己 專門主題分野에서의 權威者들만으로써 綱羅된 抄錄専門委員機構를 通하

여 統合的이면서도 高級한 水準의 大大的 인 規模의 抄錄事業을 運營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境遇에 있어서는前述한바 있는 專門性의 難關克服과 重複된 財政的浪費라는 點들은十分克服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또한 本書誌統整事業을 通한다면 現在 多方面에 亘하여 多元의 書誌資料들이 그들의 存在性 조차도 認識되지 못한채 無秩序, 雜多하게 散在하고 있을뿐더러, 그러한 資料들을 宜當히 常備하여야 할 個人이나 團體機構들이 實際에 있어서는 그들 資料를 入手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現實을 이는 또한 止揚케하여 줄수 있는 것이다. 하기는 이보다 앞서 到大體 그러한 資料가 現實의 으로 얼마나 發刊되어 있는 것인가를 反問하여야 오를것이 우리의 假飾敘는 實情이지만는 如斯한 情況을 打開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諸書誌資料들을 權威있고 體系的으로 統合하여廉價로 大量生產하여 要所要人에게 適切且適期에 廣汎하게 頒布하여야 하며 이리하여 前示한바 重複的인 統整事業에서 오는 重複된 人件費乃至는 出版費의 節約과 또한 正確하고 信憑性있는 資料의 利用에서 可期되는 바 經濟的인 利得이란 明若觀火하다할 것이다. 如斯한 一連의 自覺은 其他也是 여기에 協同的인 編目事業 좀더 크게는 資料의 協同的인 整理事業이라는 着眼케 되었고 이리하여 이의 圖滑한 運營을 通한 보다더 正確하고 信憑性있는 分類와 編目的 Process는 高級한 各種分野別 專門職으로構成되는 一團의 資料整理擔當 專門職에 依하여 重複을 避한 보다 經濟的인 整理方法으로써十分可能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各己 圖書館이 不足한豫

산을 갖고, 採用함에 不足한 數의 高級專門職員의 獲得과 整理組織의 正確을 期함에 所要되는 多量의 文獻과 用器具의 多角의 備置를 爲하여 莫重한 財源을 消費시키고 있는 現實을 本統整事業은 緩和하여 풀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先述한바와 아울러 이른바 unit card system이라는 것이 採擇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協同의in 資料整理事業과 이것이 주는 印刷카아드制의 事業組織에 參加하고 있는 文獻機關에 있어서는, 時間과 人的資源의 節約도 節約이 려니와, 于先 무엇보다도 再編目, 再分類即 資料再整理問題를, 그것이 斯界에서의 理論과 經驗에 精通하였고 따라서 모든 事情으로부터 派生될 모든 事態에 對하여 將來를 展望하는 洞察力を 갖는 Staff들의 活動을 通하여 運營되는 것이기 때문에 抑制할 수 있다는 點, 또한 各己 圖書館에서 個個人이 作成하여複寫하는 데서 오는 「미스」로 因하여 Card의 浪費와 記載內容이 여려 사람의 相異한 筆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서 오는 非鮮明性과 나아가서는 그러한 目錄카아드의 生產과 그의 入手價格이 筆寫로써 自家製作하는 것보다 輒신 低廉하다는 點等에想到할 때 本事業이 주는 物的資源의 利得點이란 不問可知라 할 것이다.

더욱이 資料의 協同購入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書誌의 整備와 그들의 統整을前提로 해서만 可能한 것이며, 이렇게 協同購入事業이 可能할 때는 大量의in 資料의 團體의 去來를 契機로 하여 그로부터 오는大幅의in 價格의 割引制의 惠澤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心算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마음으로 人的資源의 經濟라는 面에 서의 書誌統整의 必要性이란 如何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文獻情報의 提供하는 側이나, 이러한 Service 提供을 받는 側의兩者에 있어서의 無謀한 精力의 消耗에 對한 調節과 能率增進이라는 點을 没却할 수 없다는 意味에서, 우리는 이들을 包含시켜서 考察하여야 할 것이라고 生覺되는 것이다.

우선 여기에 있어서는 既述한바도 있지마는 全國的乃至는 世界的인 視野에서의 廣汎한 書誌統整을 通하여 書誌樣式과 分類體系의 統一, 體系의in 統合을 可能케하고 資料利用者나 資料提供者, 兩者側이 모다 既往에 있었던바와 같은 多元의in 書誌體系에 混迷됨이 없이 資料를 涉獵하는데 過分의 精力消耗와 時間의 浪費를 節減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點을 生覺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財政의in 面에서도 그려했었지만, 協同의in 整理事業을 推進시키므로써 不足한 高度의 專門職의 Staff들의 精力を 節約시켜 그 餘力を 即 service 分野로 돌려쓰게 하여 보다 能率의in 奉仕를 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Punched Card System이라면 가 또는 情報內容의 自國語로의 迅速한再生을 可能케 하는 翻譯機의 操作아니면 其他의 Automatic Retrieval Machine(資料의 自動檢索機)等과 같은 高度히 發達한高速의in 고도 精密한 技術의 高性能을 發揮할 수 있는 Automation의 Mechanism作用을 援用하므로써 Service를 보다 더能率의in 提供하는 한便, 人間의 精力を 그만큼 節減시켜주므로써, 그로 하여금 Mechanism의 適用이 어려운 餘他部門에 서의 創造의in 機能發揮를 劾策케하여야

한다 함은 屢述한바와 같다. 勿論 이와같이 高度의 Mechanism 을 云謂한다면 于先 經費面에서의 現實性이 없다는 것으로 簡單히 默殺하여 버릴 境遇가 적지 않다는 것을 没却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事態에 對하여 우리 人間能力의 限界性이라는 것이 어차피 宿命的으로 直面하여야 할 바에는 如斯한 Mechanism 的 文獻界에 對한 影響이라는 것은 우리로서甚深히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Printed Unit Card System 과 그의 普及事業의 展開는 物的資源의 經濟性을 두둔하여 끝내 그만큼 整理上에서 起起되는 人間精力의 節約과 아울러 高度한 整理技術의 標準화라던가 正確信賴性을 갖고, 業務의能率經濟를 「백·업」하여 줄수 있으며 그體裁가 印刷術을 通한 것이므로 記錄字體가 一般大衆性에 適合하는 高度의 內容鮮明性을 保障하여 주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利用者에 對하여 不分明한 記錄에 對한 檢索上의 深思熟考라던가 視力의 損耗度를 이는 緩和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의 普及을 通한다면 Union Catalogue의 編成 또한 容易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即述한바도 있는 資料의 協同購入을 通하여 集書의 合理化를 期할 수 있을 뿐더러, 資料의 過度한 重複性을 避하고 따라서 重複資料入手와 그의 整理 및 保存面에서 派生되는 無用의 Process를 省略케 할 수 있으니 人的資源의 經濟性이란 또한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하겠다. 特히 Index에 對하여 一考한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時宜에 맞는 Index만을 分散的으로 作成刊行할 것이 아니라, 더나아가서, 이를 分立된 資料들을 또다시 綜合하여 주는 累積索引(cumulative

index system)까지를 構想한다면, 資料檢索者의 精力과 時間浪費는 좀더 減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先述한바 抄錄의 境遇를 다시 한번 想起할 때는 抄錄을 為한 高度의 專門性을 갖는 抄錄專門家의 稀少性으로 因하여 不實한 內容의 抄錄業務를 漫然히 反覆하므로써 研究家들에 對하여 失望과 土氣의 沮喪을 줌은 勿論이려니와 杜撰한 內容때문에 研究動向에의 疏遠을 갖어오게 하여 그들로하여금 쓸데없이 重複의인 研究에다 精力を 浪費케 할 憂慮性이 없지 않다는 點을 또한 想像함에 어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非單索引이나 抄錄過程에서만 當面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書誌資料 一般의 檢索에도 共通되는 것이어서, 正確하고 迅速한 情報提供을 為하여 雜多한 資料를 包括的으로 統合整備시키고 그들 資料에 對하여 뿐만 아니라 收錄된 內容 하나 하나에 對한 解題와 評價까지를 附하므로써 利用者들의 이에 對한 信賴性과 이들에의 事前의in豫備知識를 提供하여 그들의 精력과 時間節減을 為한 모든 示唆를 畏함에 있어서도 또한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一連의 書誌統整事業을 通하여 利用者는 自身이 願하지 않는다면 情報集結點으로의 直接의in 往來의 手苦 없이 通信手段을 利用하므로써 廣汎且 容易하게 資料를 利用할 수 있다. 이의 조그마한 端의in 한 例로서는 巡回文庫나, 母子文庫 또는 其他 讀書會를 為하여 文庫用 書誌資料를 頒布하므로써 家庭이나, 社會團體들이 그들의 現在의in 位置에서 資料를 容易하게 또한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게 하며, 이렇게 하여 後述하려는바 圖書館이나, 文獻센터에서의 利用訪問者들의 集

結로 因한 空間的狹隘性을 緩和하여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行政機關이나 企業團體에서의 本事業의 機能發揮와 그 寄與한 適切한 關係情報의 週期에 迅速하게 Middle Management 뿐만 아니라 Top Management에다 正確하게 傳達하므로써 자칫하면 試行錯誤에 빠지기 쉬운 그들 企劃業務上에다 能率增進의 契機와 全體事業運營을 爲하여 所要의 Brain을 提供할 수 있다는데 또한 우리는着眼할 수 있다는 點일 것이다.

셋째번으로 時間의 經濟라는 面에서의 書誌統整의 必要性은 이를 우리는 어떻게 把握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對하여는 이미 前述한 두가지 理由에서 屢述하였으므로 또다시 重言敷衍을 삼가려 하지마는 다만 前示兩者에서 論한 同一한 事項들이 時間의 經濟라는 面에서도 또한 考察될 수 있다는 點만을 몇 마디로 概括하여 놓으므로써 이에 代置하려는 것이다.

即 洪水처럼 밀려 나오는 科學文獻에 對하여 科學者自身으로서도 이들을 全部通讀 把握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重要한 獨創性 있는 點만을 要領있게 摘出抄錄하므로써 科學文明의 發展現況을 短時間內에 把握할 수 있도록 紹介하는 關係論文의 內容을抄錄하는 Abstracting Service 라던가, 또다시 雜多한 多元의 書誌資料의 涉獵에 必要하게될 時間의 過用을 緩和하여 주기 爲하여 보다 包括的인 累積索引의 方法이란 書誌統整에 있어서 没却할 수 없다던가, 또는 Printed unit card system乃至는 Co-operative Cataloging System을 通하여 資料의 整理組織에 所要되는 時間은大幅減縮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Punched card system翻譯

機, 또는 Documentation의 Automatic한 Operation의 힘을 援用하여 時間을 經濟할 수 있다던가 或은 論文內容目次의迅速한 事前豫告事業인 科學, 技術分野에 있어 서의 "Current Articles Unlimited"의 發刊, 또는 通信手段을 通하여 遠距離에 位置하는 情報源을 短時間에 寫眞複寫等의 方法을 通하여入手할 수 있다던가 하는 等等의 모든 方法을 採用하여 可能한 時間의 經濟性增强을 爲한 努力과 試圖가 繼續되어 왔었음은 周知의 事實이 려니와, 이들 모다가 書誌統整事業의 意識과 實踐의 行動性을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期約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書誌統整이 必要하게 된다고 하는 理由中에서 空間의 經濟性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 또한 先述한 바 있는 前示三者의 牽連性을 갖는同一事項들을 列舉하고 거기에서 筆者는 그들이 空間性과 關聯되는 點들만을捕捉하여 이에 接近하여 보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于先文獻界가 逢着하고 있는 바 問題를 奉仕面에서 考察할 때 오늘날 文獻情報의 爲한 資料에의 直接的 經濟性을 接觸 即 直接 Service라는 것은高度한迅速性을 要하므로 그로因한 時間性과의 關聯性에서도 그려하려니와 그것이 空間의 狹隘性을 緩和하여 준다고 하는 條件 때문에 漸次 Bibliographical control를 媒介要素로 하는 間接 Service機能發揮의 傾向이 있다고 하는點과 아울러 또한 그것은 文獻 Service가 空間性을超越하여 多方面에亘한 全國的·世界的 空間性을 超越하여 多方面에亘한 全國的·世界的 Scale을 갖고 廣汎하게 그의 活動을 展開하고 있기 때문에서 뿐더러 나아가서 新聞·雜誌와 같이 體積의 急增性을 갖는 資料들을

Microreproduction medium 을 通하여 資料 保存上 不可缺한 Space의 要素에 對한 制約를 克服케 하여 준다고 하는 見地에서도 또한 이 書誌事業은 構想되어 왔던 것이다. 뿐더러 不用圖書 即 第二線資料들을 無謀히 廢棄撓却하는데 있어서 좀더 慎重을 期하는 同時に 文明이 集約的으로 形成된 地點에서의 如斯한 資料들이 占領하는 空間의 高價性에 鑑하여 이들을 文明의 普及이 比較的 稀薄하며, 따라서 空間의 要素에 所要되는 財源의 充用이 低廉하게 드는 同時に 各己 關係地點으로부터 便利한 中央의 位置를 擇하고, 이에다 그려한 資料들을 共同의 運營管理下에 所藏하여 必要한 境遇에 隨時로 通信手段을 利用하므로써 그들 資料를入手하여 보려는 企圖가 또한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는 美國의 Mid-west Inter-library Center의 境遇에서 다시 한번 想起시켜 볼必要가 있을 것이며, 이런 境遇에 있어서도 書誌統整과 이것과의 關聯性은 密接不可離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本書誌統整은 不必要한 程度의 同一資料의 重複性을 調節하여 주므로써 적지 않은 空間의 節減을 確保케 하여 준다고 하는 利點을 附與하는 것이다. 이 外에도 空間의 經濟面에서만 이를 捕捉할때는 既出한바 여러 事例에서 이미 截酌이 갈수 있었듯이 이것은 무턱대고 資料를 菲集하는 것을 調整하기 為하여 或種資料들이 直接의 면서도 또한 Specific하게 關係되며 同時に 切實하게 要求되는 資料이라는 것과 아울러 그들의 質의 水準을 示唆하여 주므로써, 莫大한 資料로써 充棟되어질 資料의 膨脹을 Control 하는데 一役을 擔當할 수 있는 Abstracting Service乃至는 推薦

良書目錄類의 編成과 統整을 可能케 하며 또 다시 多樣의 書誌資料를 統合시켜 統一의 으로 體系編成시켜 好는 境遇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物의 能率의乃至는 時間의 經濟뿐만 아니라 多少나마 資料保存을 為한 空間의浪費를 또한 防止하여 줄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印刷카아드 等에서 볼 수 있듯이 狹少한 紙面에다 많은 內容事項을 收容할 수 있다는데 對하여서도 우리는 또한 注意를 疏忽히 할 수 없는 同時に 또다시 Documentation의 高性能作用에서 염불 수 있는 Punched card system이라면가 Rapid Selector 또는 유니텀式 等의 Mechanism을 動員시키므로써 情報資料를 極히 좁은 空間에다 完全收容하였다가 後日에 必要한 事項만을 霎時間에 再生시켜 이들을 傳達할 수 있는 그려한 高性能 機械裝置의 存在를 우리는 알고 있는 바이지마는, 이러한 一連의 方法을 採擇하여 龙大 한量에 達하는 資料를 狹少한 面에서의 保存은 可能한 것인데 여기에서 또다시 書誌統整이 주는 空間의 利得點을 우리는捕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文獻界는 오늘날의 巨勢한 立體文明의 空間의 緊迫感을 어느 程度로라도 調節緩和하려고 모든 努力を 傾注하고 있는 것이다.

4. 書誌統整事業의 方法과 類型 및 그 內容

1) 總 說

既히 屢述하여 온 바와 같이 書誌統整事業論을 展開함에 앞서서, 筆者는 먼저 書誌의 概念을 把握하므로써 이를 最廣義로捕捉한다는 點을 前提한바 있었고 그마음으로 書誌統整의 「必要性」을 네 가지 「카메고리」로 나누어, 이들을 概括的으로 評

見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좀더 分析的인 方法을 試圖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처럼 많은 經濟의 利點을 갖다 주는 書誌統整이란 具體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더 具體的으로는 既述해온바 그러한 書誌統整에 있어서의 統整이란 무엇이며(was) 그것은 누가(who) 어떻게(wie)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2) 統整의 意義

여기에서 頻出되고 있는바 書誌統整에 있어서의 「統整」(Control)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周知되어 있다시피 「여러 賈래로 나누어진 事物을 한가지로 모우는것〔乃至는〕 어떠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모든 部分을 한 原理로 歸納하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 좀더 이를 敷衍한다면 統整은 自由放任에 對한 概念으로 그것은 自由放任의 結果 發生하는 諸矛盾을 全體의 인 立場에서 規整할 必要性이 要請하는 하나의 方法이라 할것이며 이것이 文獻界에서의 書誌라는 것과 結合될때 그것은 文獻의 順調롭고도 經濟的 技術的인 管理와 運用의 合理性를 期하기 爲하여 먼저 合理的인 企劃에 依하여 文獻의 蒐集과 整理組織 및 保存과 運用過程에서의 여러가지 複雜하고도 重複의이며 消極的 封鎖의in 機能과 process를 止揚하고, 이의 合理化·標準化·機械化를 圖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國家機關 또는 特定團體나 機構가 如斯한 目的實現을 爲하여 直接·間接으로 또한 程度의 強弱을 不問하고, 組織의으로 이러한 作用을 調整하는 것인데, 이를 簡潔하게 整理한다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即 強制的인 統整(Coercive control)과 説得的인 統整(Persuasive control)의 두가지가 그것들

인데, 前者는 通常은 政府나 權力의in 背景을 갖는 法的機關에 依하여 法的인 根據를 갖고 그의 統整權을 發動시킬 수 있는 方法임에 反하여, 後者는 通常으로는 喧示·模倣·非難·報酬·承認·反應·感化等을 契機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書誌統整(Bibliographical control)이라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大部分의 사람들은 이를 主로 全國書誌(National Bibliography) 또는 綜合目錄(Union Catalogue)等의 編成과 管理調整에만 着眼하여 云謂하는 것이一般的인 것 같다. 그러나, Catalog 만을 主眼에 두고, 일삼을 때는 그려 한 書誌統整은 말하자면, 百年河清을 期待하는 것과 別다름이 없는 것이다.換言하면 書誌文獻自體는 圖書라고 하는 純粹文獻을 基礎로 하여 비로소 可能한 것 이기 때문에 書誌統整은 무엇보다도 資料 蒐集과 資料의 整理組織 및 管理保存乃至는 運用이라는 面과의 相關關係에서 이를 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即 이는 恒常結果에 對한 事後處理의in 臨床醫學의 立場으로부터 모든 發生可能한 Case에 對하여 事前의in 豫防策 講究에 보다더 關心을 베푸는 오늘날의 豫防醫學의 境遇에서 처럼 事後處理의in 書誌統整에만 끄칠 것이 아니라 進一步하여 事前對策의 方向으로 本統整事業은 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書誌統整은 書誌調整, 文獻活動,乃至는 文獻行政 等의 別稱이 있듯이 書誌 Service 와 거이 同義語로 使用되고 있다 는 것으로 보아 또한 無難할 것이다.

3) 書誌統整의 方法

(1) 主體

이제까지 說明하여 온바 書誌統整은 그려면 누가 主管하는 것인가? 말할것도

없이 經濟的基礎와 行政的 및 技術的의 能力を 具備한 者라면 그 누가 이를 한다 하여도 無妨하다는 程度를 넘어서 오히려 全幅의 인 歡迎과 勸獎을 서슴치 않는 바이나 實際에 있어서 그것은 웬만한 實力を 가춘 機關이나 團體가 아니면 그의 實現性이란 至難之事에 屬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文獻活動이란 文化의 尖端에서 知的情報의 活動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이론과 文化活動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前示한 바 強制의인 統整 即 法의 强制手段에 呼訴함이 없는 說得의인 影響力, 即 喻示·模倣·非難·報償·承認·反應等의 感化的인 事緣을 契機로 하여 統整되어야 할 것이라는 点에 對하여는 異存이 없을 것이다. 如斯히 統整方法을 文化的·社會의 으로 考察하여올 때 그 方法으로서 當然히 後者の 景遇를 擇한다는 것은 自明한 노릇이겠으나 現實에 있어서 여기에 적지 않은 難點들이 介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書誌統整事業이란 元來 全國의 國際의 視野에서 運營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先述하였듯이 莫大한 豫算의 財政의in 背景뿐만 아니라 그 活動類型과 範圍의 廣範且 多樣의in 性格에 비추어 보아 高度한 專門技術家들로 組織되는 構成體가 形成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것은 國際의in 關係를 갖고 登場하게 된다는 理由뿐만 아니라 永久의in 持續性을 維持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強力한 法의 背景을 갖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理想論은 어рова 間에 於此彼 이것이 그 어떤 中央의in 國立機關化하여야 한다는 것이一般的인 定論으로 되어 왔었고 또한 많은 先進外國의 先例에서도 우

리는 이 事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는 그러한 機構가 國家統治機關中의 그 어느 部에 두어져야 할 것이냐에 對하여 甲論乙駁이 없지도 않으나 이에 對하여는 筆者대로의 卑見을 披瀝한 바 있었으므로 여기에 다시 反覆치 않으려니와 다만 한가지 添言한다면 歷史의in 傳統과 現實의in 要請의兩者에 照鑑하여 여기의 問題가 되어 있는 바 國內의in 書誌統整의 主體가 되어질 國立中央圖書館의 創設과 그의 國家權力構造上에서의 位置는 決定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이다. 그런데, 本書誌統整事業이 國際의in 視野에서 世界的으로 擴大되어 推進運營되어야 할 境遇에 그 主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世界政府의 性格을 띠우고 있는 United Nations의 管掌下에 強力히 推進되어야 한다 함은 이미 常識化되어 있는 바로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U.N. 機構內의 UNESCO가 그의 主體가 되어 가지고, 各己 單一國家와의 統合의 統一의in 書誌統整에 淹沒하고 있는 터이며 이를 爲하여 財政의·技術의 및 行政의in 援助를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것이다.

(2) 客體

그런데 여기의 書誌統整上의 客體란 都大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는 統整될 資料만을 意味하는 것 같은 印象을 받게 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이를 非單 그려한 資料에만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生產하여 내는 生產源, 다시 말하면 그것은 出版者·發行者·去來仲介者나, 또는 文書館·圖書館, Documentation center 등을 意味하며 또한 그것이 個人이건 團體이건 或은 自家出版을

하였던 또는 他人을 通하여 出版되었던 間에 或은 謄寫版이건 打字版이건 또는 活字版이건 間에 着여도 그것이 公開性을 떠웠고 또한 그들이 單行本, 雜誌 또는 其他의 文獻資料의 形式으로 資料를 發刊하였나든가 或은 이를 資料에 對한 書誌文獻等을 行刊하였을 境遇에는 이들은 一切 書誌統整上의 規律對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統整作用

이리하여 前記 統整客體는 資料納本制度의 規律下에 着여도 2~4部式은 반드시 그의 統整主體에 다 納付하므로써 版權의 保護를 받게되는 것인데 그 主體에 있어서는 이 納本을 契機로하여 高度히 發達한 審查와 分析 및 其他의 處理能力을 갖고 版權保障과 더불어 書誌統整에 所要되는 一切의 高性能의 process를 操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境遇에 있어서 그 主體는, 人的·物的乃至는 機類資源을 總網羅하여 이들을 最大限度로 總動員시켜야 할것임은 豐言을 要치 않는 바이며 따라서 資料의 莊集·整理·保存 및 이들의 探索再現乃至는 處分과 이를 一連의 作用過程의 總決算인 書誌編成等의 作用을 為하여는 高度히 發達한 水準의 合理的·機械的·標準의 專門機能發揮하는 것이 絶對의 으로 要請되는 것이다.

4) 書誌統整事業의 類型과 그 內容

(1) 類型

여기에서 있어서 書誌統整事業의 類型을 文獻機構一般에 共通의 一貫된 作用行程에 着眼하여 이들이 展開되어 나아가는 序次에 따라서 逐次의 으로 檢討吟味하는 것도 한가지 方法이 아닌가 筆者는 生覺한다. 即, 筆者는 이를 資料莊集段階에 서의 書誌統整, 그의 整理組織段階에 서의 그것

斗 管理保存段階에 서의 統整 및 그 資料의 運用段階에 着眼하여 觀察하는 書誌統整의 諸段階와 比照하여 가면서 論하려는 것인데, 이는 다음에 展開되어 나오는바 書誌統整事業의 內容과의 連關係에서 볼때, 相互間 經과 緯의 關係乃至는 縱과 橫의 關係로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兩者를 如斯히 論하는 것이 보다 效果의 인接近方法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리하여 우리는 書誌統整事業의 類型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即

① 納本制度를 通한 版權의 保障과 書誌統整을 為한 基礎資料의 自動的인入手提供

② 國內外의 資料生產에 關한 統計의 作成과 그를 通한 現況提示.

③ 資料의 協同購入을 為한 國家의 統整

④ 書誌「써어비스」의 基礎가 되는 全國書誌, 綜合目錄, 索引, 抄錄 等의 書誌의 用具作成에 必要한 分類法, 目錄記述法等의 統一化를 期한다.

⑤ 國內外의 으로 各地域에서 企劃·實施되는 書誌의 用具作成에 對하여 調整을 行하여 이들에 對한 無用의 重複을 避하도록 한다.

⑥ 特히 協同의 資料의 整理事業을 推進시킨다.

⑦ Documentation 活動의 推進과 그 調整.

⑧ 文獻機構相互間의 資料 貸借事業의 管理調整.

⑨ 資料의 各種 複寫乃至 機械的 翻譯方法을 通한 再生產 Service.

⑩ 出版物의 國際交換事業管掌.

⑪ 不用資料의 除籍과 共同管理.

斯上에서 보는바와 같이 書誌統整의 類型은 資料의 莊集서부터 그가 運用되는

段階에 이 름에 介在되 는 一連의 諸般技術의 問題와 協同組織 및 그 作用의 問題의 兩者를 特히 書誌라는 點에 定立시키고 거기에서 派生된 바 나아가서 되어질 諸般問題를 統整打開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繼續)

註 ⑫ 論文發表數는 科學者들의 實績을 評價하는 基準이 되는 것이므로 때에 따라서서는 創發性없는 大端치 않은 論文들이 文獻의 增幅에 加速질하고 있다는 點에 우리는 또한 注目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㉓ 이때에는 抄錄機關自體가 하는 경우뿐 아니라 發表者自身이 作成한 抄錄을 그대로 掲載하는 事例도 적지 않다.

㉔ 이는 資料共同保管地點을 選定하는 必須條件은 아니다.

㉕ 既出「국어 세사전」p. 820

㉖ 下中邦彥編, 經濟學辭典, 東京, 平凡社, 1961. p. 283, 1301 및 福武直等編. 社會學辭典, 東京, 有斐閣, 1962. p. 394

㉗ 既出「圖書館ハントヅク」p. 590

㉘ 劉永玗. 第一回 全國圖書館大會가 말하는 것(教育評論, 1962年 12月號 p. 60~)

㉙ 여기의 公開性 또는 秘密性의 問題는 相對的인 것이며 時空性에 依하여 左右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非公開性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러한 同類資料에 對한 一覽的인 記錄——書誌——란 것은 不可避한 것이라고 生覺된다.

㉚ Wilson and Tauber, op. cit, p. 602 및 前揭「圖書館ハトヅク」p. 590. ①~④는 前記資料에서 나온것이고 其他는 筆者の 見解를 表出하여 보았는데, 그 罗列序次는 先述한 바 있는 作用過程의 展開順序에 거누어서 한 것이다.

(繼續)

延世大學校 圖書館學叢書 出刊！

No. 10

白 麟 著.

奎障閣 藏書에 對한 研究.

No. 11.

千 惠 凤 著.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嘗面한 諸問題.

No. 12.

明 在 暉 著.

圖書館의 管理上 組織.